

광주일보

박내영 전남체육회 사무처장 행정학 박사



박내영(60)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이 행정학 박사가 됐다.

박 사무처장은 최근 전남대학교 대학원(행정학과)에 졸업 논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지도교수 복문수)이 최종 통과돼 오는 26일 졸업식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박 사무처장은 도내 106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중점 분석한 학위논문에서 "사회적기업이 궁극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기존 시장 경제 영역과 경쟁 및 협조 체계 구축, 여기에 사회환경이 뒷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보도일자

박내영 전남체육회 사무처장 행정학 박사 취득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영향' 전남대 논문 통과

박내영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60)이 행정학 박사가 됐다.



박내영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최근 전남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지도교수 복문수)이 최종 통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현직 공무원(2급·이사관) 신분을 유지한 채 전라남도체육회에 파견근무중인 박내영 사무처장은 명실상부하게 학문과 현장실무를 겸비한 행정학 박사라는 개인적인 영광을 안게 됐다.

박내영 사무처장은 오는 26일

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박내영 사무처장의 박사 취득까지는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집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석사를 받은 뒤 5년이 걸린 2003년도에 박사학위 대학원에 발을 내딛게 된 박내영 사무처장은 지도교수로부터 지방공기업의 실패 사례 분석의 논문제목을 권유받고 자료를 준비하다 인간적인 고뇌로 중단했으나 "자녀(1남1녀)들에게 보다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열정이 그를 다시 학업으로 끌어들이었다.

도 관광문화국장 재임시 체육업무를 접했던 경험을 살려 전라남도체육회와 체육인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는데 앞장서온 박내영 사무처장은 지난해 3월부터 마지막 고비였던 박사 논문 작성에 매달렸다.

특히 논문 제목 역시 지역의

성공 사례가 그리 많지 않고 생소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였지만 결집력이 되지 않았다.

향후 계획에 대해 박내영 사무처장은 "이번 행정학 박사를 통해 정년퇴임 후에도 연구를 계속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데도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내영 사무처장의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 소식을 접한 전남 체육인들은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리더자와 함께 2014년도에는 지난해 제94회 전국체육대회 13위 부진 등을 만회하는 등 '전남 체육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서 스포츠 선진지 전남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는 전남도체육회의 사업계획 추진 방향의 큰 틀이 가속도를 뒀으면 한다"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윤창병 기자

남조두레이

박내영 전남체육회 사무처장

'행정학 박사 됐다'

전남대학교 논문 통과...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영향요인

박내영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60)이 행정학 박사가 됐다.

박내영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최근 전남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지도교수 복문수)이 최종 통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현직 공무원(2급·이사관) 신분을 유지한 채 전라남도체육회에 파견근무중인 박내영 사무처장은 명실상부하게 학문과 현장실무를 겸비한 행정학 박사라는 개인적인 영광을 안게 됐다.

박내영 사무처장은 오는 26일 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박내영 사무처장의 박사 취득까지는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집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석사를 받은 뒤 5년이 걸린 2003년도에 박사학위 대학원에 발을 내딛게 된 박내영 사무처장은 지도교수로부터 지방공기업의 실패 사례 분석의 논문제목을 권유받고 자료를 준비하다 인간적인 고뇌로 중단하였으나, "자녀(1남1녀)들에게 보다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열정이 그를 다시 학업으로 끌어들이었다.

도 관광문화국장 재임시 체육업무를 접했던 경험을 살려 전라남도체육회와 체육인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는데 앞장서온 박내영 사무처장은 지난해 3월부터 마지막 고비였던 박사 논문 작성에 매달렸다.

특히 논문 제목 역시 지역의 성공 사례가 그리 많지 않고 생소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였지만 결집력이 되지 않았다.

논문 요약은 대략 이렇다.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사회적기업이 나타났으나, 우리나라는 2003년 움트기 시작하여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마련됐다. 2010년 12월 사회적기업 수는 501개, 2012년 12월까지는 774개에 불과했다.

문제는 사회적기업의 존립 가치다. 극대칭인 '영리성'과 '공익성'이 동반 공존한 관계로 사회적기업이 영세성을 탈피하고 정부의 일차리 지원정책이 중단되더라도 지속 가능하겠느냐 여부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논문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영리적 성과와 공익적 성과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선행연구를 통해 이 2가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전략적 요인, 경영역량 요인, 조직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설정하여 도내 106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고 중점분석하게 됐다.

영리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전략적 요인, 경영역량 요인, 그리고 사회환경적 요인 중의 네트워크 활용 정도도 나타났고, 공익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전



략적 요인, 경영역량 요인 그리고 조직적 요인 중의 사회적기업가 정신으로 나타났으며, 지속가능성에 정(+)의 직접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경영 역량 요인 하나로 나타났다.

박내영 사무처장은 정책적 제언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출발 자체가 정부 주도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생력과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그렇더라도 중복 지원이나 수혜를 최소화하면서 단순 예산 지원이 아닌,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사무처장은 "사회적기업이 궁극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기존 시장 경제 영역과 경쟁 및 협조 체계 구축, 여기에 사회환경 또한 뒷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박내영 사무처장은 "이번 행정학 박사를 통해 정년퇴임 후에도 연구를 계속하여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데도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내영 사무처장의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 소식을 접한 전남 체육인들은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리더자와 함께 2014년도에는 지난해 제94회 전국체육대회 13위 부진 등을 만회하는 등 '전남 체육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서 스포츠 선진지 전남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는 전라남도체육회의 사업계획 추진 방향의 큰 틀이 가속도를 뒀으면 한다"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성영 기자

호남매일

박내영 전남체육회 사무처장 박사학위 취득

전남대서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영향요인' 논문 통과

박내영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60)이 행정학 박사가 됐다.

박 사무처장은 최근 전남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지도교수 복문수)이 최종 통과돼 오는 26일 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2003년에 박사학위 대학원에 발을 내딛게 된 박 사무처장은 지도교수로부터 지방공기업의 실패 사례 분석의 논문제목을 권유받고 자료를 준비하다 인간적인 고뇌로 중단했으나, "자녀들

에게 보다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열정이 그를 다시 학업으로 끌어들이었다.

도 관광문화국장 재임시 체육업무를 접했던 경험을 살려 전라남도체육회와 체육인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는데 앞장서온 박 사무처장은 지난해 3월부터 박사 논문 작성에 매달렸다.

특히 논문 제목 역시 지역의 성공 사례가 그리 많지 않고 생소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였지만 결집력이 되지 않았다.

박 사무처장은 정책적 제언에

서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출발 자체가 정부 주도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생력과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그렇더라도 중복 지원이나 수혜를 최소화하면서 단순 예산 지원이 아닌,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사무처장은 "사회적기업이 궁극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기존 시장 경제 영역과 경쟁 및



협조 체계 구축, 여기에 사회환경 또한 뒷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민철 기자

남도일보

박내영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전남대 박사 논문 통과...사회적기업 영향요인 연구

박내영(사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이 행정학 박사가 됐다.

박내영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최근 전남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지도교수 복문수)이 최종 통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현직 공무원(2급·이사관) 신분을 유지한 채 전남도체육회에 파견근무중인 박내영 사무처장은 명실상부하게 학문과 현장실무를 겸비한 행정학 박사라는 개인적인 영광을 안게 됐다.

박 사무처장은 오는 26일 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석사를 받은 뒤 5년이 걸린 2003년도에 박사학위 대학원에 발을 내딛게 된 박 사무처장은 지도교수로 부터 지방공기업의 실패 사례 분석의 논문제목을 권유받고 자료를 준비하다 인간적인 고뇌로 중단했으나 '자녀(1남1녀)들에게 보다 멋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는 열정이 그를 다시 학업으로 끌어올렸다.

전남도 관광문화국장 재임시 체육 업무를 접했던

경험을 살려 전남도체육회와 체육인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는데 앞장서온 박 사무처장은 지난해 3월부터 마지막 고비였던 박사 논문 작성에 매달렸다.

특히 논문 제목 역시 지역의 성공 사례가 그리 많지 않고 생소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였지만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박 사무처장은 "이번 행정학 박사를 통해 정년퇴임 후에도 연구를 계속하여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데도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광호 기자

sgn@namdonews.com

광주특임즈

박내영 전남체육회 사무처장 '행정학 박사 됐다'

전남대학교 논문 통과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영향



박내영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60)이 행정학 박사가 됐다.

박내영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최근 전남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지도교수 복문수)이 최종 통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현직 공무원(2급·이사관) 신분을 유지한 채 전라남도체육회에 파견근무중인 박내영 사무처장은 명실상부하게 학문과 현장실무를 겸비한 행정학 박사라는 개인적인 영광을 안게 됐다.

박내영 사무처장은 오는 26일 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박내영 사무처장의 박사 취득까지는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집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석사를 받은 뒤 5년이 걸린 2003년도에 박사학위 대학원에 발을 내딛게 된 박내영 사무처장은 지도교수로부터 지방공기업의 실패 사례 분석의 논문제목을 권유받고 자료를 준비하다 인간적인 고뇌로 중단하였으나 "자녀(1남1녀)들에게 보다 멋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열정이 그를 다시 학업으로 끌어올렸다.

도 관광문화국장 재임시 체육업무를 접했던 경험을 살려 전라남도체육회와 체육인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는데 앞장서온 박내영 사무처장은 지난해 3월부터 마지막 고비였던 박사 논문 작성에 매달렸다.

특히 논문 제목 역시 지역의 성공 사례가 그리 많지 않고 생소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였지만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논문 요약은 대략 이렇다.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사회적기업이 나타났으나, 우리나라는 2003년 움트기 시작하여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마련됐다. 2010년 12월 사회적기업수는 501개,

2012년 12월까지 774개에 불과했다.

문제는 사회적기업의 존립 가치다. 극대칭인 '영리성'과 '공익성'이 동반 공존한 관계로 사회적기업이 영세성을 탈피하고 정부의 일자리 지원정책이 중단되더라도 지속 가능하겠느냐 여부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논문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영리적 성과와 공익적 성과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선행연구를 통해 이 2가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전략적 요인, 경영역량 요인, 조직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설정하여 도내 106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하고 중점분석하게 됐다.

영리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전략적 요인, 경영역량 요인, 그리고 사회환경적 요인 중의 네트워크 활용 정도로 나타났고, 공익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전략적 요인, 경영역량 요인, 그리고 조직적 요인 중의 사회적기업가 정신으로 나타났으며 지속가능성에 정(+)의 직접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경영역량 요인 하나로 나타났다.

박내영 사무처장은 정책적 제언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출발 자

체가 정부 주도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생력과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그렇더라도 중복 지원이나 수혜를 최소화하면서 단순 예산 지원이 아닌,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사무처장은 "사회적기업이 궁극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기존 시장 경제 영역과 경쟁 및 협조 체계 구축, 여기에 사회환경 또한 뒷받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박내영 사무처장은 "이번 행정학 박사를 통해 정년퇴임 후에도 연구를 계속하여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데도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내영 사무처장의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 소식을 접한 전남 체육인들은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리더와 함께 2014년도에는 지난해 제94회 전국체육대회 13위 부진 등을 만회하는 등 전남 체육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서 스포츠 선진지 전남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는 전라남도체육회의 사업계획 추진 방향의 큰 틀이 지속도를 댔으면 한다"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영주 기자